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05.15

KOSDAQ | 상업서비스와공급품

# 고려신용정보 (049720)

## 국내 채권추심업계의 독보적 1위 기업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3/10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2026년 핵심 목표로 1) 배당성향 40% 이상 유지, 2) ROE 20% 이상 유지와 3) 내부통제 강화 및 정보보호 관련 리스크 점검을 제시
- 이를 위한 계획으로 1) 고배당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한 배당성향 40% 이상 관리, 2) 비용 구조 효율화 및 운영비 통제를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 3) 사외이사 확대를 통한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와 4) 불법추심, 신용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 점검을 수립



### 체크포인트

-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난 13년간 국내 채권추심업계 내 시장점유율 1위 유지
- 투자포인트는 1) 업계 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 2)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 주가는 밸류에이션 하단에 위치. 리레이팅을 위해선 정부의 규제 기조 완화 또는 신사업을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필요하다고 판단

###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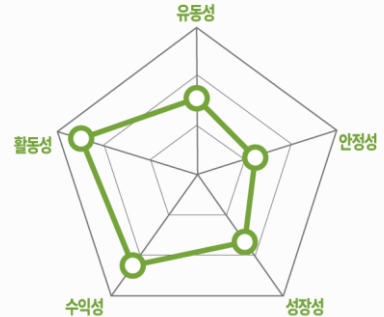


### 재무지표



주: PSR, PER, PBR은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산업재산업 내 순위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 밸류에이션 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등급화

### 국내 채권추심업계 1위 기업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기업. 핵심 사업은 채권추심업으로 매출의 90% 비중을 차지. 국내 대표적인 독립계 채권추심 전문회사로, 주요 사업 분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부실채권 Life Cycle 전체를 관리하는 종합 채권관리 회사임

### 투자포인트1. 업계 내 독보적인 시장점유율과 수익성

고려신용정보는 국내 채권추심업계에서 13년간 시장점유율 1위 자리 유지 중.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11%에서 2025년 20.4%로 지속적으로 상승. 업계 내 1위 시장점유율 지속은 1) 압도적인 인적 경쟁력, 2) 브랜드 경쟁력, 3)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4) 선제적인 IT·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기인. 수익성 측면에서도 업계 내 독보적인 위치. 2025년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9.4%이며, ROE는 22.9%. 반면,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3% 수준이며, 경쟁사들의 ROE는 5~8% 수준. 업계와 차별화되는 수익성의 배경에는 1) 자산 경량화 중심의 사업 구조, 2) 업계 1위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우량 채권 선점 효과, 3) 고수익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 4) 숙련된 인적 자원과 고부가가치 자산관리(AMC) 역량이 존재

### 투자포인트2.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동사는 3월 10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2026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배당성장 40% 이상을 제시. 과거 동사의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2020년 37.1%에서 2025년 53.2%로 꾸준히 상승. 동사는 Asst-Light 비즈니스 형태로 상대적으로 잉여현금흐름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자유로운 상황. 또한, 올해 ROE 20%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자본 효율성을 높여 이를 주주 환원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는 의지를 피력. 이에 동사의 배당성향을 2025년과 유사한 54.3%로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 경우 동사의 DPS는 550원, 현주가(5/13일 주가)에서 배당수익률 5.6% 예상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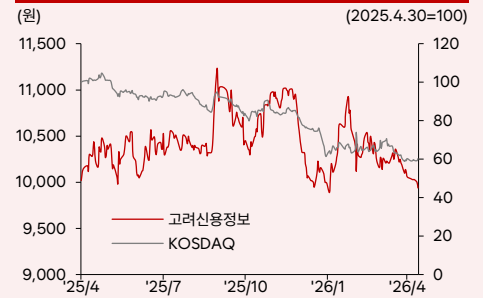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468	1,582	1,713	1,780	1,862
YoY(%)	1.1	7.8	8.3	3.9	4.6
영업이익(억원)	120	131	153	167	177
OP 마진(%)	8.2	8.3	8.9	9.4	9.5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06	118	132	133	145
EPS(원)	741	823	926	927	1,012
YoY(%)	7.5	11.1	12.5	0.2	9.1
PER(배)	14.6	11.6	10.9	11.4	9.7
PSR(배)	1.1	0.9	0.8	0.8	0.8
EV/EBITDA(배)	9.1	7.3	6.3	6.1	5.2
PBR(배)	3.9	3.0	2.7	2.4	2.0
ROE(%)	29.3	27.7	26.9	22.9	21.8
배당수익률(%)	3.1	4.0	4.5	4.7	5.6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Company Data

현재주가 (5/13)	9840원
52주 최고가	11,230원
52주 최저가	9,840원
KOSDAQ (5/13)	1,176.93p
자본금	72억원
시가총액	1,407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4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6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6억원
외국인지분율	34.9%
주요주주	운의국 외 7인 44.00%

### Price & Relative Performance



###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4	-6.7	-4.6
상대주가	-10.6	-27.2	-40.6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시 법안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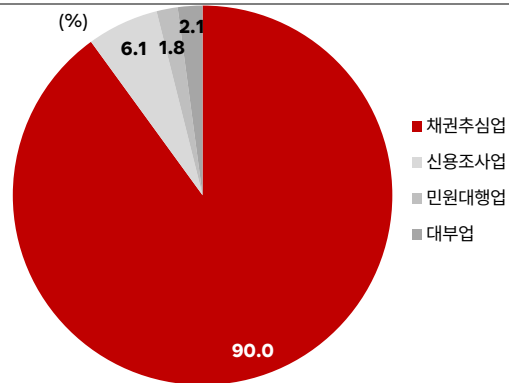
### 1 국내 채권추심업계 1위 신용정보회사

국내 채권추심업계 1위  
신용정보회사로, 2025년  
채권추심업 매출 비중 90% 차지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과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이다. 동사는 1991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 신용조사업을 시작으로 1995년 신용정보업, 1998년 채권추심업 허가를 취득하며 현재의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2002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이후 금융기관, 통신사, 공공기관, 일반 기업 및 개인 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채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핵심 사업은 채권추심업이다. 채권추심업은 채권자로부터 연체채권의 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채무자 소재 파악,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대행 등을 수행하고, 회수 성과에 따라 약정수수료를 수취하는 용역 사업이다. 동사는 신용정보협회 기준 국내 채권추심 업계 1위를 13년 연속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별도 기준 채권추심업 매출 비중은 91.9%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결 기준으로는 종속회사 행복드림금융대부의 대부업 매출이 반영되며, 2025년 연결 매출 비중은 채권추심업 90.0%, 신용조사업 6.1%, 민원대행업 1.8%, 대부업 2.1%이다.

#### 고려신용정보의 매출액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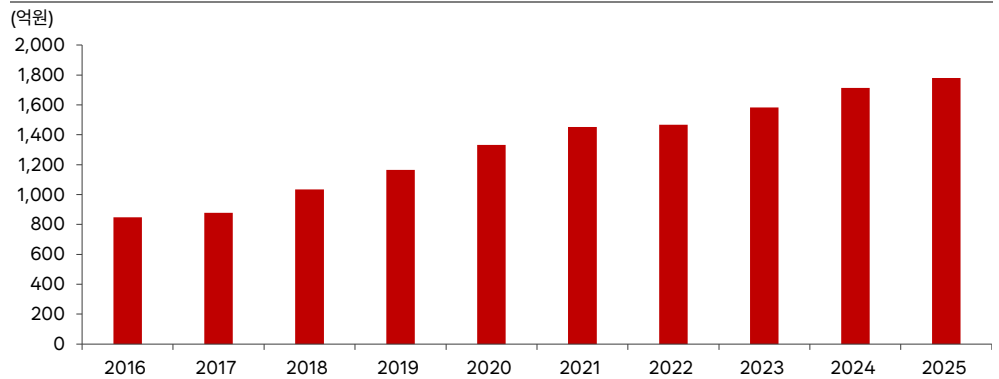


주: 2025년 기준, 자료: 고려신용정보,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1,74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채권추심업은 경기 부진,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시행, 새출발기금의 확대 운영 등 채무자 보호 중심 정책 영향으로 회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았으나, 신규 거래처 확보와 영업 기반 확대, 조직 운영 효율화 및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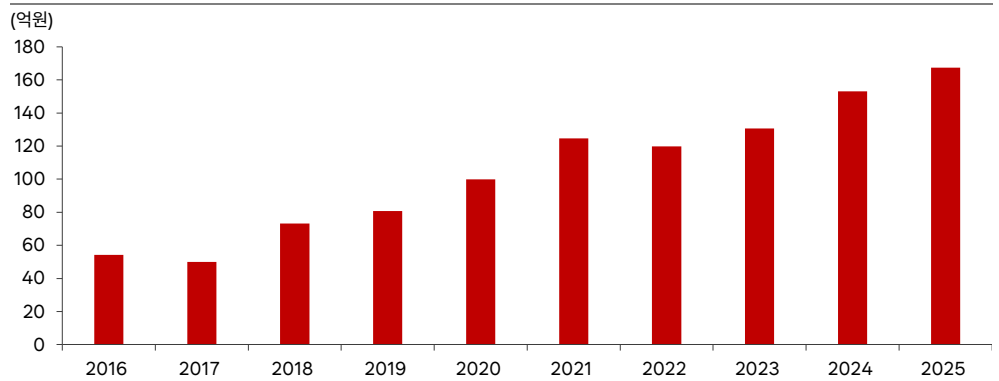
고려신용정보의 위임추심형 사업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즉, 동사는 채권자로부터 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회수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한다. 따라서 채권 매입형 비즈니스와 달리 대규모 채권 보유에 따른 직접적인 대손 리스크는 제한적이며, 매출은 수입 채권 규모, 회수율, 약정수수료율, 채권관리 인력의 생산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고려신용정보의 매출액 추이



자료: 고려신용정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고려신용정보의 영업이익 추이



자료: 고려신용정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혁: 1991년 설립,  
2002년 코스닥 시장 상장**

고려신용정보는 1991년 설립된 이후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관련 인허가를 확보하며 현재의 사업모델 기반을 마련했다. 설립 초기에는 신용조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5년 신용정보업 허가, 1998년 채권추심업 허가를 취득했다.

2002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같은 해 시티은행의 전신인 한미은행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했다. 2004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2007년에는 KT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으며 통신채권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혔다.

2009년에는 KB손해보험의 전신인 LIG손해보험, 삼성카드, 우리캐피탈, 대우캐피탈, 나우B캐피탈 등 다수 금융기업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에는 대한주택보증, LG유플러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광주은행, 청호나이스 등과 계약을 맺으며 금융채권, 통신채권, 렌탈채권 등 다양한 채권군으로 사업 기반을 확대했다. 2018년에는 신한카드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창업주 윤의국 회장의 자녀인 윤태훈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2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되었다.

2019년에는 연결 자회사 행복드림금융대부를 설립해 대부업에 진출했다. 2021년에는 케이뱅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

을 체결했으며, 2023년에는 토스뱅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통신사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고객 기반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기존 채권추심업 외에도 자산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신용정보의 주요 연혁

1991~2008	2009~2018	2019~
1991.06 회사 설립	2009.01 삼성카드 채권추심 위임계약	2019.05 한국장학재단 업무 수임
1991.10 신용조사업 허가 취득	2009.02 신용회복기금 채권추심 위임계약	2019.06 행복드림금융대부(위) 설립
1994.02 고려신용조사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9.04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2차 채권추심 위임계약	2019.12 인터랙션코어이슈 설립
1995.08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	2009.08 CRM센터 겸업 승인	2019.12 신용회복신청자 관리업무 겸업 승인
1996.06 민원대행업 겸업 승인	2010.08 LG U+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0.0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업무 수임
1996.10 고려신용정보(주)로 상호 변경	2011.01 KT 요금상담센터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0.05 CMB 업무 수임
1998.07 채권추심업 허가 취득	2011.08 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0.09 KB국민은행 SPC 후순위채 투자
2000.03 윤익국 회장 신용정보협회 초대 회장 취임	2011.08 윤익국, 박종진 공동 대표이사	2020.09 KB저축은행 채권추심 위임계약
2000.05 통합신용정보시스템(DreamViv) 개발 착수	2011.1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1.02 오티스엘리베이터 업무 수임
2001.01 통합신용정보시스템(DreamViv) 가동	2012.01 새마을금고중앙회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1.03 자산관리자 겸업 승인
2002.01 KOSDAQ 상장	2012.03 엘스트로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업무 제휴	2021.09 케이뱅크 채권추심 위임계약
2002.01 자본금 증자	2012.04 한국무역보험공사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1.09 현대렌탈 채권추심 위임계약
2002.10 시티은행 채권추심 위임계약	2012.08 Delivery 서비스 겸업 승인	2021.10 한국투자저축은행 채권추심 위임계약
2003.04 박종진 대표이사 취임	2012.12 유암코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2.01 프리텔레콤 고객센터 업무 수임
2004.07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채권추심 위임계약	2013.05 SK텔레콤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2.01 아이즈비전 고객센터 업무 수임
2005.01 국민은행 채권추심 위임계약	2013.06 아트라디우스 해외 채권추심 업무 제휴	2022.03 웰리스렌탈 고객센터 업무 수임
2005.05 외환카드 채권추심 위임계약	2014.04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승인 추가	2022.07 우리금융저축은행 채권추심 위임계약
2006.05 KSJ Investment Inc. 미국 현지법인 설립	2014.06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신고	2022.08 우리F&H 업무협약 체결
2007.01 KT 채권추심 위임계약	2015.07 전북은행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2.10 예가림저축은행 PDS센터 업무 수임
2007.07 알계 최초 CRM센터 설립	2016.05 차세대 전산시스템 K-VISION 가동	2022.10 하나캐피탈 채권추심 위임계약
2008.07 대한주택보증 채권추심 위임계약	2018.01 신한카드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3.02 대신저축은행 채권추심 위임계약
2008.07 기술보증기금 채권추심 위임계약	2018.02 해외 조사 업무 제휴	2023.02 토스뱅크 채권추심 위임계약
2008.07 SC제일은행 채권추심 위임계약	2018.03 윤태훈 대표이사 취임	2023.06 강원신용보증재단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3.06 전북은행 채권추심 위임계약
		2025.08 33억원 규모 현금배당 결정

자료: 고려신용정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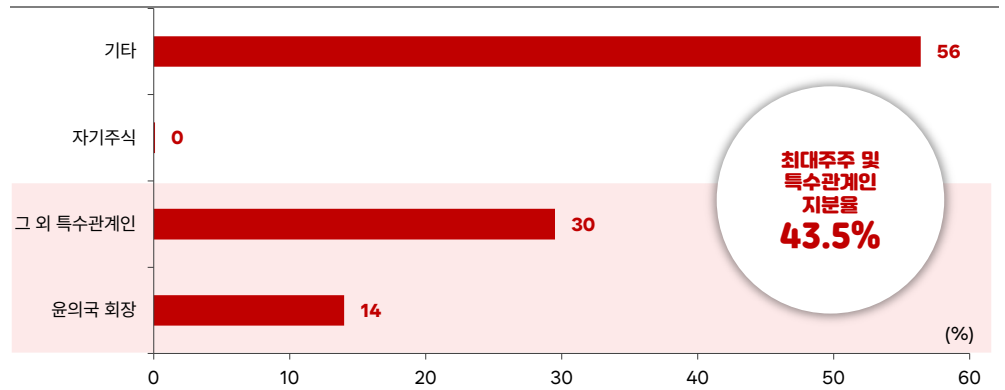
고려신용정보의 최대주주는 윤익국 회장으로 지분을 14.0% 보유

2025년 말 기준 고려신용정보의 최대주주는 윤익국 회장으로, 보통주 2,007,962주, 지분율 14.0%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3.5%이다. 주요 특수관계인에는 신예철(윤익국 회장의 妻) 12.2%, 윤태훈(윤익국 회장의 子女) 대표이사 10.6%, 고려휴먼스 5.0%, 유수연(윤익국 회장의 子女) 1.6% 등이 있다. 고려휴먼스는 금융보안업무 및 근로자 파견을 영위하며, 윤익국 회장이 지분 30% 이상(33.45%)을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025년 중 일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이 있었다. 신예철과 유수연은 각각 시간외매도를 통해 75,000주를 신한카드에 매도하였다. 고려휴먼스는 장외매도를 통해 626,249주를 하나캐피탈에 매도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기초 48.9%에서 기말 43.5%로 하락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 변동은 없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여전히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상 창업주 일가 중심의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주식은 0.1%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 중 자기주식 상여 지급 11,400주와 신한카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 350,000주가 이루어지면서, 기초 374,384주에서 기말 12,984주로 감소했다.

고려신용정보의 주주구성(2025.12.31)



자료: 고려신용정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3 종속기업

**연결대상 종속회사:**  
**행복드림금융대부(100.0%)**

2025년 말 기준 고려신용정보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행복드림금융대부가 있다. 당사는 행복드림금융대부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와 전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은 없었다.

행복드림금융대부는 서울에 소재한 대부업 영위 회사로,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부동산담보대출과 매입채권추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2025년 말 기준 자산은 327억원, 부채는 178억원, 자본은 150억원이다. 2025년 영업수익은 37억원, 당기순이익은 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영업수익은 34억원에서 37억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했다.

고려신용정보의 지배구조(2025.12.31)



자료: 고려신용정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모델**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과 대부업을 영위하는 종합 채권관리 회사

고려신용정보는 국내 대표적인 독립계 채권추심 전문회사로, 단순 추심업체라기보다는 종합 채권관리회사이다. 동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과 자회사(행복드림금융대부)를 통한 대부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추심업에는 자산관리(AMC: Asset Management Company)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유기적인 사업부간 연결을 통해 고려신용정보는 부실채권 Lifecycle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1. 채권추심업(2025년 연결 매출 비중: 90%)**

채권추심업은 부실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 및 관리를 대행하는 회사의 핵심사업으로, 동사는 13년 연속 국내 업계 내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의해 규정되며, 법적으로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고려신용정보는 1998년 허가를 취득했다. 채권추심업은 용역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우수 인력의 유지 및 확대가 매출 성장의 주요인이다. 동사는 신용정보협회에 등록된 위임직 채권추심인 중 약 20% 수준의 압도적인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채권관리 인력은 약 1,603명이다.

고려신용정보는 전통적으로 위임추심형(Collection Agency Model)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회사이다. 위임추심형은 채권의 소유권은 원채권자에게 있고 추심업체는 회수 업무만 위탁 받는 구조로, 채권 부실 자체 손실을 원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위임추심형은 서비스업에 가까우며, 수익 구조도 회수액에 일정 비율의 약정 수수료를 공급 수수료를 받는다. 즉, 채권이 실제로 회수되었을 때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성공 보수 형태이며, 수수료율은 채권 종류나 회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로, 매입채권형의 경우, 채권소유권을 추심사가 가져가서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채권추심업은 수입하는 연체채권의 발생 주체 및 채권 성격에 따라 민사채권, 상사채권, 금융채권 및 자산관리(AMC) 채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집행권원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추심이 가능하다. 상사채권은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을 의미한다. 금융채권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장부상 보유한 상태에서 추심 업무만 전문 회사에 위탁하는 형태이다. 자산관리채권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을 FNI(금융자산매입 전문회사)나 자산운용사에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채권이다. 실제 인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SPC)가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수 및 자산관리 업무는 채권추심업체와 같은 전문기관이 대행한다.

동사는 금융위원회의 신고 및 허가를 통해 경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동사는 2021년부터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별도 경영 승인을 받아 AMC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신용조사업(2025년 연결 매출 비중: 6.1%)**

신용조사업은 개인 및 법인의 소재, 재산, 신용상태와 거래 정보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업무이다. 신용조사업은 금융

위의 허가가 필요한 업무로,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조사업무를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상 금융기관 입장에서 신용조사업은 대출 전후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며, 채권추심업에서는 채권 회수와 관련해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사전 조사 업무와 연계된다. 즉, 고려신용정보에게 신용조사업은 추심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

### 3. 대부업(2025년 연결 매출 비중: 2.1%)

고려신용정보는 종속회사인 행복드림금융대부를 통해 대부업을 영위하며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대부업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나, 고려신용정보의 경우 대부업은 본업인 추심업무를 보조하는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채무 재조정과 채권 회수 지원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행복드림금융대부의 주요 사업 부문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 4. 민원대행업 및 기타(1.8%)

민원대행업과 Delivery 서비스업은 동사가 금융위의 별도 신고 및 허가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겸영업무이다. 민원대행업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용 서류(등기부등본 등)를 발급하는 것이며, Delivery 서비스업은 의뢰인이 요청한 주요 서류(약정서, 신청서 등) 및 부속서류를 징구하고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산업 현황**

**1 채권 추심업의 산업 개요와 수익구조**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업의 한 부분으로 금융위 허가가 필요한 규제 산업. 매출은 성공보수, 비용 구조는 Asset-Light**

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연체·부실채권의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을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의 한 부문이며, 국내에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규제산업이다. 법률상 허가 대상이 제한되고, 최소자본금(30억원)과 인력·물적시설 요건을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쉽지 않다. 이 점 때문에 국내 채권추심업은 수요는 경기와 함께 변동하되, 공급자는 제한된 시장이다.

채권추심업의 수익모델은 위임추심형과 매입채권형/NPL(부실채권) 투자형이 있다. 위임추심형의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원채권자이며, 추심사는 회수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반면, 매입형/NPL 투자형은 추심사 또는 AMC(자산관리사)가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회수한다. 회수액이 매입가보다 크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위임추심형 대비 수익성이 높으나, 회수 실패 시 손실도 크다. 국내 시장은 위임추심형 비중이 높다.

수익구조는 제조업과 다르다. 채권추심업 매출은 본질적으로 회수실적에 연동된 성공보수이며, 통상 회수액 × 약정 수수료율의 형태로 산출된다. 따라서 위임 물량이 늘어도 실제 회수율이 낮아지면 매출 성장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경기 회복과 법적 절차 진전으로 회수율이 올라오면 매출과 이익률이 함께 개선된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을 단순히 연체 증가 수혜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

비용 구조는 전형적인 Asset-Light에 가깝다. 주요 비용은 전산·통지·법무·관리비와 위임직 추심인에게 지급되는 성과 연동 보수이고, 유형자산 투자 부담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상위사는 높은 현금창출력과 배당 여력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규제 강화로 생산성이 조금만 훼손돼도 영업 레버리지가 축소될 수 있다.

주요 고객군은 1)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2) 통신·렌탈·유통·도시가스 등 반복 청구형 B2C 사업자, 3)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과 4) 상사·민사채권을 보유한 일반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있다.

**2 국내 채권추심업계 구조**

**국내 추심업계는 24개의 사업자 존재. 금융기관 계열 사업자, 독립계 전문 업체, AMC 계열 사업자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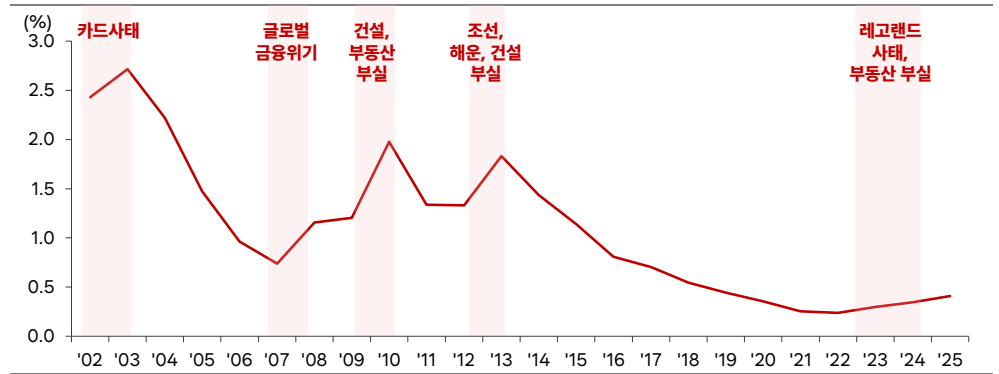
국내 채권추심업계에는 24개의 허가 사업자가 있다. 국내 채권추심업계의 주요 Player는 1) 금융기관 계열 사업자, 2) 독립계 전문 업체와 3) NPL 및 AMC 계열 사업자로 구분된다. 금융기관 계열 사업자는 그룹 내부의 안정적인 채권 물량(captive)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대표적으로 NICE신용정보와 신한신용정보 등이 있다. 반면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독립계 업체는 외부 금융기관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확보해왔다. 독립계 업체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현장 영업 역량, 장기간 축적된 회수 노하우를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3 채권추심업계의 사이클과 현황**

**채권추심업계의 사이클:**  
**신용팽창부터 회수를 반등까지**

채권추심업계의 사이클은 신용팽창 → 연체율 상승 → 부실채권 발생 및 확대 → 부실채권 위임 및 매각 물량 증가 → 경기 안정과 함께 회수율 반등의 흐름을 따른다. 통상 경기침체가 부실채권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채무자 상환 능력을 떨어뜨려 초기에는 회수율이 낮다가 점진적으로 경기가 개선되면서 높아진다. 즉, 부실채권 물량과 회수율은 다른 시차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진다.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로 살펴본 채권추심업계의 사이클



주: 일반은행 기준, 자료: 금감원,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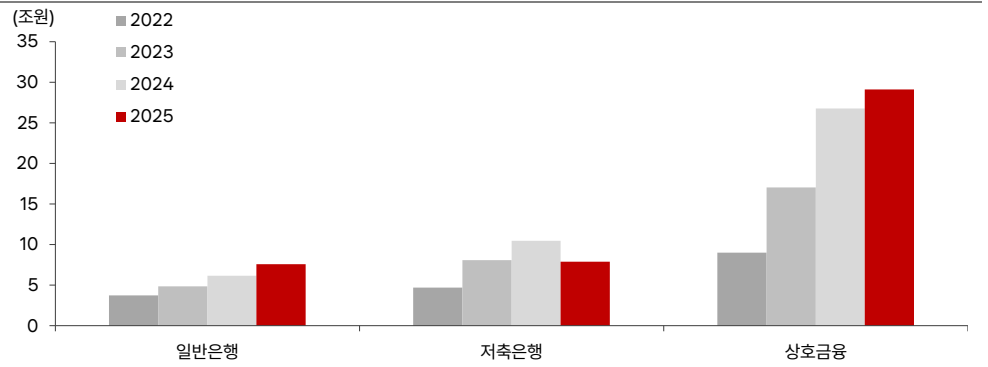
**최근 국내의 신용팽창은**  
**2020년 코로나 기점으로 발생,**  
**2023년 이후 NPL시장 구조적**  
**확대 국면에 진입**

최근 국내 신용팽창은 2020년 코로나 시점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2020~2021년 코로나 국면에서 초저금리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 그리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책이 시행되며 국내 신용이 빠르게 팽창하였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 부동산 PF, 가계신용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당시 정책적 지원에 기반한 부실 이연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며 실제 연체율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NPL 시장 규모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환경은 급변하였다. 조달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위축, PF 시장 경색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코로나 기간 누적된 과잉 유동성과 레버리지 구조의 취약성이 점차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자영업자-다중채무자-지방 부동산 PF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면서 PF 차환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는 금융권이 잠재 부실을 본격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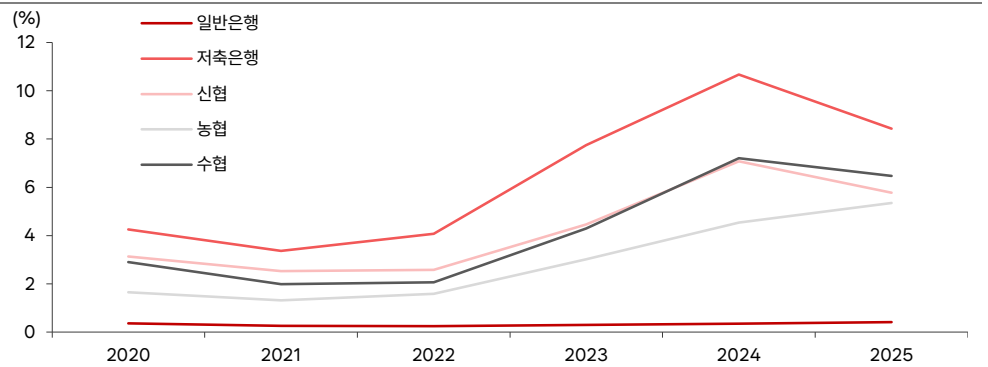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23년 이후 국내 NPL 시장은 구조적인 확대 국면에 진입하였다. 상호금융·저축은행·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연체채권 및 PF 익스포저 매각이 빠르게 증가했다. 2022년 3.7조원이었던 은행권(일반은행 기준)의 NPL 규모는 2025년말 7.6조원까지 2배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의 NPL도 1.4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했다.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의 NPL 증가속도는 가팔라, 2022년 9.0조원에서 2025년말 29.1조원까지 급증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NPL) 추이



자료: 금감원,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



자료: 금감원,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NPL 증가국면에**

- 1) 채무자의 실질 상환 능력 약화,
  - 2)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시행,
  - 3) 배드뱅크와
  - 4) 부동산 경기침체로
- 채권추심업계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는 국면

그러나 현재 NPL 증가가 채권추심업계의 실적 개선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연체율 상승과 함께 금융권의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확대되며 채권추심업계의 수입 물량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한 채권 발생 증가가 곧바로 회수 실적 및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채무자의 실질 상환 능력이 과거 대비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과거에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연체채권의 상당 부분이 정상화되거나 회수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현재는 자영업 경기 부진과 실질소득 둔화, 다중채무 증가 등이 중첩되며 회수율 자체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업계 입장에서는 수입 가능한 채권 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현금 회수 및 수수료 수익으로 연결하기는 과거보다 어려워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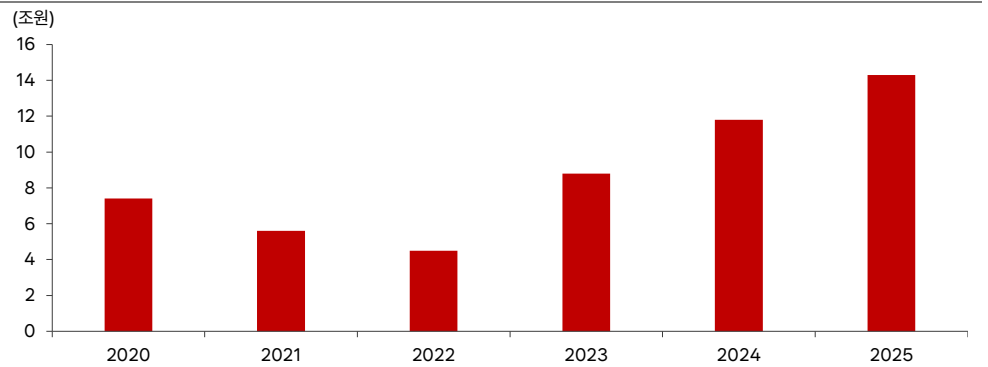
동시에 법적·제도적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10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채권 추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내부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채무자 보호 중심의 감독 기조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비 추심 프로세스가 복잡해졌고,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관리 비용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제도 활성화 등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 자체가 제한되면서 업계의 실질적인 영업 기회 역시 축소되고 있다.

시장 구조 변화 또한 중요한 변수다. 최근 금융권은 부실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배드뱅크 및 AMC를 통한 매각·상각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보유 채권을 대거 매각하거나 상각할 경우, 기존 채권추심업체가 위탁관리 형태로 보유하던 재고 채권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 즉 단순 신규 채권 발생 규모와 별개로, 업계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 재고 채권 기반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역시 회수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담보부 부실채권의 경우 최종 회수를 위해 경매 및 자산 처분 절차가 필요하지만, 전세사기 여파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경매 물량이 급증한 반면 이를 처리할 행정 역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으로 서울 핵심지를 제외한 지방 및 비아파트는 침체가 장기화되며 담보자산 매각이 용이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곧 회수 속도 저하 및 자금 회전을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

**일반은행의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추이**



자료: 금감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본력과 전문성 보유한 플레이어  
중심으로 시장 개편 예상**

종합적으로 현재 국내 NPL 시장은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거와 같은 단순 고수익 시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부동산 PF 중심의 복합 부실 구조, 높은 자금조달 비용, 강화된 규제 환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은 자본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플레이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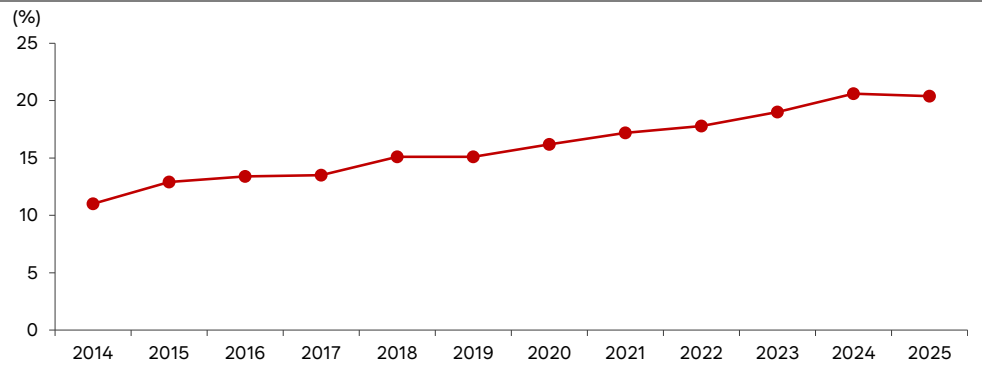
**1 업계 내 독보적인 시장점유율과 수익성**

**투자포인트1. 채권추심 업계 내 독보적인 시장 지위와 수익성**

고려신용정보의 첫번째 투자포인트는 채권추심 업계 내 독보적인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이다.

고려신용정보는 국내 채권추심 업계에서 지난 13년간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 채권추심 업계의 전체 시장 규모(수수료 수익 기준)는 2014년 6,346억원에서 2025년 7,869억원으로 연평균 2% 성장하는 동안 고려신용정보의 채권추심 매출액은 699억원으로 1,603억원으로 연평균 7.8% 성장했다. 그 결과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11%에서 2025년 20.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려신용정보의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고려신용정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고려신용정보는**

- 1) 압도적인 인적 경쟁력,**
  - 2) 브랜드 경쟁력,**
  - 3)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 4) IT,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 기인해 지난 13년간 연속 시장점유율 1위 유지**

고려신용정보가 국내 채권추심업계에서 13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1) 압도적인 인적 경쟁력, 2)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브랜드 경쟁력, 3)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4) 선제적인 IT·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기인한다. 채권추심업은 단순 시스템 중심 산업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협상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현장 인력의 역량과 운영 체계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동사는 신용정보협회 등록 위임직 채권추심인 중 약 20%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 내 독보적인 수준의 인적 기반이다. 특히 추심 관리사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법률·금융 지식은 단순 독촉 중심의 업무를 넘어 채무자의 상황 가능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회수 전략을 도출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AI 및 자동화 기술이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동사의 구조적 진입장벽으로 평가된다.

업계 1위 사업자로서의 브랜드 경쟁력 역시 중요한 차별화 요소다. 채권자들은 회수 가능성이 높은 추심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량한 신규 채권이 동사에 우선 유입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다시 추심 관리자 입장에서 높은 수익 창출 가능성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우수 인력이 경쟁사 대비 낮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동사에 잔류하거나 신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즉, 브랜드 경쟁력이 우량 채권 확보와 우수 인력 유입을 동시에 견인하며 시장지배력 강화로 연결되는 구조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역시 동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동사를 ‘고려 사관학교’로 지칭할 정도로 인재 양성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동사는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법률 교육과 위임직 중심인 대상 정기 직무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산관리(AMC) 부문에는 은행권 및 부동산 전문가를 정규직으로 영입하여 담보부 부실채권의 회수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경매 및 유동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내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PF 및 부동산 부실 확대 국면에서 경쟁우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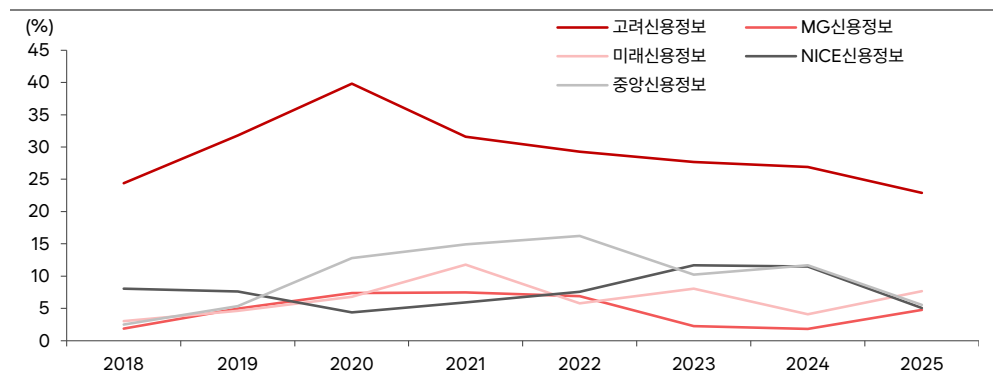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동사는 특정 채권군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민사·상사채권뿐 아니라 금융채권, 통신채권, 렌탈채권, 공공기관 채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리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기 및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 42개 지점으로 구성된 조직망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추심 활동과 효율적인 채무자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추심 업무에 IT 기술을 접목하며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차세대 채권관리 시스템인 ‘K-VISION’을 고도화하여 증가하는 수입 물량에 대응하고 있으며, 관리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IT협력센터와 디지털혁신단을 신설하여 채권관리 업무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와 내부 기준을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함으로써 내부통제와 보안 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대응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업계 내  
독보적인 수준 유지**

고려신용정보는 수익성 측면에서도 업계 내 독보적이다. 2025년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9.4%이며, ROE는 22.9%이다. 2020년 39.8%를 기록했던 ROE는 자본이 당기순이익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22.9%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경쟁사들의 2025년 ROE가 한자리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2018년 7% 초반에서 현재 9% 중반까지 상승했으며, 업계 평균인 3%수준의 3배에 달하는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올해도 ROE 20%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고려신용정보와 경쟁사의 ROE 추이



자료: 고려신용정보, 금감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높은 수익성은**

- 1) 자산 경량화 중심의 사업 구조,**
- 2) 우량 채권 선점 효과,**
- 3) 고수익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
- 4) 우수한 인적 자원 역량에 기인**

동사의 독보적인 수익성은 1) 자산 경량화 중심의 사업 구조, 2) 업계 1위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우량 채권 선점 효과, 3) 고수익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 4) 숙련된 인적 자원과 고부가가치 자산관리(AMC) 역량에 기인한다. 동사는 단순 규모 확대보다는 회수 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의 영업 전략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우선 동사의 사업 구조는 전형적인 Asset-Light 모델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업은 유형 자산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이 아니라 무형의 회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상 매출원가 부담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비용 구조 측면에서도 핵심 비용인 채권추심 관리사 수수료가 회수 실적에 연동되는 변동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채권 회수에 성공해야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제한적이며, 수입 물량 확대와 회수율 상승이 곧 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경기 변동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동사의 경쟁사 대비 수입 물량 규모가 크고, 회수율도 높아 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업계 1위 사업자로서의 브랜드 경쟁력 역시 높은 수익성의 핵심 요인이다. 동사는 13년 연속 업계 1위를 유지하며 채권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First Call' 사업자로 자리잡고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추심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우량 채권이 동사에 우선 유입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높은 회수 실적과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으로 이어지며, 다시 우수 관리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 역시 수익성 차별화의 중요한 배경이다. 동사는 금융기관 중심의 대량 위임 채권뿐 아니라 민사·상사채권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고려신용정보의 비금융 채권 비중은 전체 채권 비중의 50%를 차지하며, 비금융채권 내 민사와 상사채권 비중이 각각 70%와 30%이다. 금융채권은 물량 규모는 크지만 단일 수수료율 계약 구조로 인해 수익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민사 및 상사채권은 회수 난이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적용이 가능하다. 동사는 이러한 채권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단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영업이익률로 이어지고 있다.

숙련된 인적 자원과 자산관리부문의 경쟁력 강화 역시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동사는 은행권 및 부동산 전문가 중심의 AMC 조직을 운영하며 담보부 부실채권(NPL)에 대한 자산 재평가, 경매 및 유동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 위임추심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 투자포인트2. 주주환원정책**
-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 배당성향 40%이상 제시.**
- 2026년 배당성향 2025년과 유사한 54.3% 예상. 현주가에서 배당수익률 5.6% 기대 가능**

고려신용정보의 두번째 투자포인트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

동사는 3월 10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2026년 핵심 목표로 1) 배당성향 40% 이상, 2) ROE 20% 이상과 3)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서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당성향 4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세계 측면에서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의지를 표명했다. 참고로, 고배당 상장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1)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2)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

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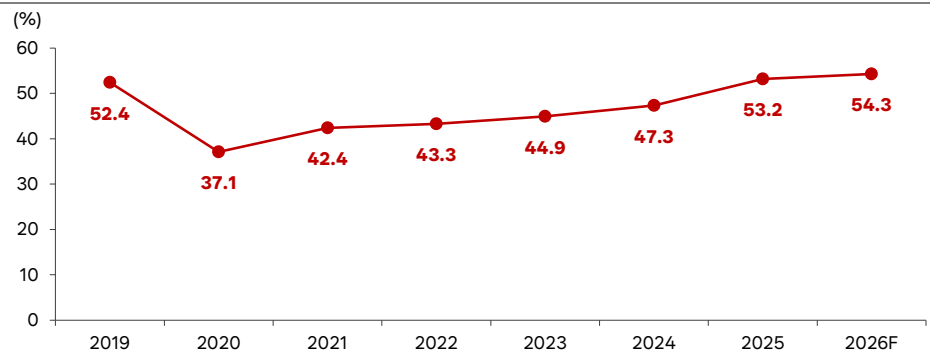
과거 동사의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2020년 37.1%였던 동사의 현금배당성향(연결 당기순이익 기준)은 2021년 42.4%, 2022년 43.3%, 2023년 44.9%, 2024년 47.3%와 2025년 53.2%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이는 동사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에 따라 동사의 주당 현금배당금도 2020년 275원에서 2025년 500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분기배당을 실시한 동사는 2022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여 통상적으로 6월말 기준 중간 배당과 12월말 기준 결산 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이후 고려신용정보의 배당수익률은 3%~4% 중 반대를 기록했다.

동사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상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자본집약도가 낮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동사는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ROE 20%이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주주환원으로 연결하는 선순화 구조를 지향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 시 올해도 동사의 배당성향은 2025년(53.2%)과 유사한 수준인 54.3%를 유지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DPS는 550원 현주가(5/13일 주가 기준)에서 배당수익률은 5.6%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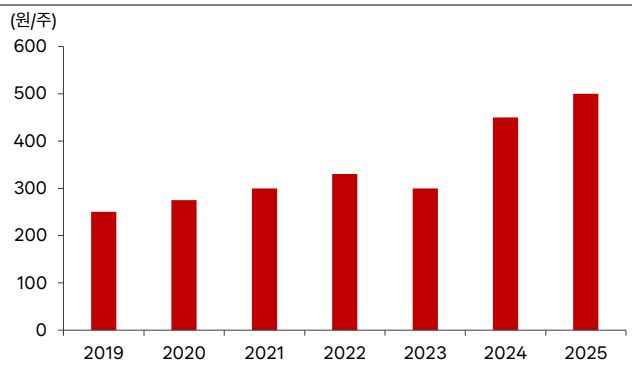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동사의 적극적인 동사의 주주환원정책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려신용정보의 현금배당성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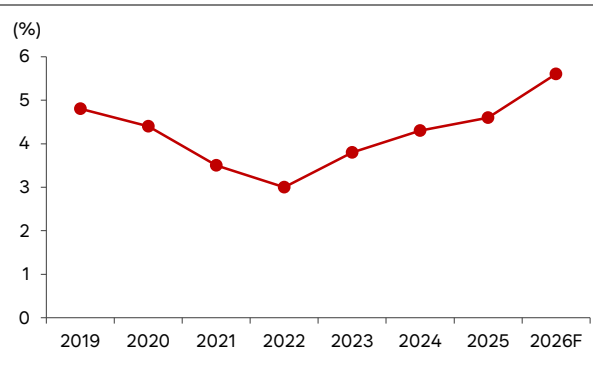
주: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자료: 고려신용정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고려신용정보의 주당 현금 배당금 추이



자료: 고려신용정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고려신용정보의 현금 배당수익률 추이



자료: 고려신용정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Review**

**2025년 매출액**  
**1,780억원(+3.9%YoY),**  
**영업이익 167억원(+9.3%YoY)**  
**기록**

고려신용정보의 2025년 매출액은 1,780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동사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채권추심업의 매출액은 1,603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고, 신용조사업과 민원 대행업은 각각 전년 대비 0.2%, 11.2% 감소했다.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0%, 8.6% 성장했던 채권추심업 매출액은 2025년 증가율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주요인은 과거 2년간 실적을 견인했던 비은행권 연체 급증 국면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3년~2024년에는 고금리 환경과 부동산 PF 부실 확대 영향으로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외부 위임 추심 수요와 NPL 매각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반면, 2025년에는 연체율 상승 속도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며 신규 수임 물량 증가율도 이전 대비 완만해졌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1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9.4%로 2024년 대비 0.5%p 상승했다. Asset-Light 기반의 영업레버리지 효과, 업계 1위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우량 채권 선점 효과와 고수익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꾸준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133억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했다.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 매출액**  
**1,862억원(+4.6%YoY),**  
**영업이익 177억원(+5.6%YoY)**  
**예상**

당사는 고려신용정보의 2026년 매출액을 1,862억원(+4.6%YoY), 영업이익을 177억원(+5.6%YoY), 영업이익률을 9.5%(+0.1%pYoY)로 추정한다.

동사의 채권추심업 매출액은 1,680억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할 예정이다. 고려신용정보는 매출액을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KPI)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녹록치 않은 업계 상황으로 인해 성장률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2026년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채권 공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채권추심업계의 영업 환경 측면에서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강화된 법적 규제, 정부주도의 채무조정 정책과 회수 여건 악화로 실제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고려신용정보는 부정적인 업계 환경 하에서 자본력과 시스템,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는 영업레버리지 효과, 업계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수 인력과 우량 채권의 동사로의 집중 효과에 기인한다.

다만 동사는 신사업으로 기업정보조회업 인가 취득을 추진하고 있어, 이의 진행 속도 여부가 2026년 매출과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사는 동사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며 축적된 채무 관련 비금융 데이터를 익명, 가명화하여 고부가

가치화하고 이를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 시 신용 평가를 할 때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비금융 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모델’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다. 현재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단계에 있다.

실적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468	1,582	1,713	1,780	1,862
YoY	1.1	7.8	8.3	3.9	4.6
신용조사업	83	98	108	108	109
채권추심업	1,321	1,413	1,534	1,603	1,680
민원대행업	25	32	37	33	35
대부업	38	39	34	37	38
영업이익	120	131	153	167	177
YoY	-3.8	9	17.1	9.3	5.6
영업이익률	8.2	8.3	8.9	9.4	9.5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106	118	132	133	145
YoY	7.5	11.1	12.5	0.2	9.1
당기순이익률	7.2	7.4	7.7	7.4	7.8

자료: 한국IR협의회 리서치센터

분기 실적

(단위: 억원, %)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매출액	415	432	434	432	426	449	455	450
YoY	12.5	8.2	7.5	5.4	2.7	3.9	4.9	4.1
신용조사업	26	27	27	28	27	27	28	26
채권추심업	370	387	389	389	383	403	408	408
민원대행업	10	9	9	8	9	9	8	7
대부업	9	8	9	8	8	9	11	9
영업이익	32	39	38	45	33	42	45	47
YoY	12.7	22.2	33.7	5.3	5.3	6.7	20.5	5.2
영업이익률	7.6	9.1	8.7	10.3	7.8	9.3	10.0	10.4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26	35	32	39	27	34	37	34
YoY	-15.3	39.6	32.0	4.4	5.9	-2.2	15.5	-14.0
당기순이익률	6.2	8.1	7.4	9.1	6.4	7.6	8.2	7.5

자료: 한국IR협의회 리서치센터



## Valuation

**고려신용정보의 2026년 예상 PER은 9.7배로 밸류에이션 하단 위치. 리레이팅을 위해선 정부의 규제 기조 완화 또는 신사업을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필요하다고 판단**

고려신용정보의 2026년 예상 PER은 9.7배 수준이다. 이는 지난 5년간 동사의 주가가 PER Band 8.0배~19.0배 범위에서 거래되었고, 평균 PER이 11.7배였음을 감안할 때 역사적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위치한 수준이다. PBR 기준으로 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 수준에 근접해 있다. 동사의 2026년 예상 PBR은 2.0배로, 과거 5년간 형성된 PBR Band 2.0배~5.2배(평균 2.9배)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2022년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고려신용정보의 PER은 2022년 20.9배까지 상승하며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디레이팅이 나타났다. 2022년 당시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자영업자 및 개인 차주의 연체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확대와 채권추심 시장 성장 기대가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리스크와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면서, 시장은 고려신용정보를 대표적인 부실채권 확대 수혜주로 인식하였다. 이는 추심 물량 증가 및 실적 성장 기대를 기반으로 동사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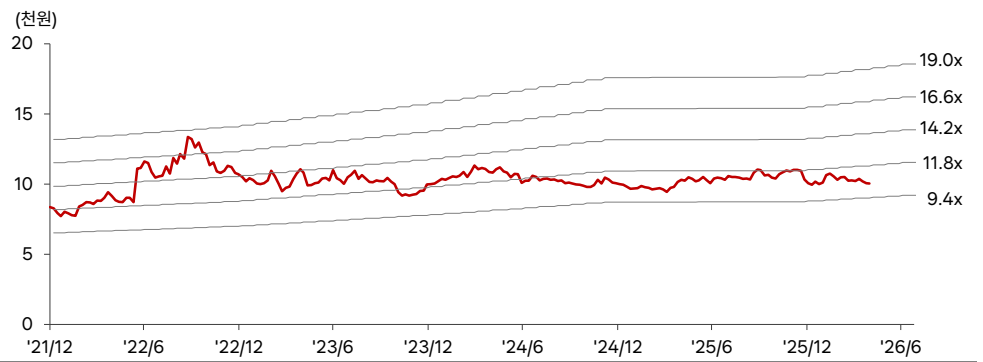
그러나 2023년 이후 정부의 채무자 보호 정책 강화와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 변화가 본격화되며 시장의 시각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조성,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확대,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연체률 정책을 강화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정책형 배드뱅크 논의 또한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으로 구체화되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규제가 강화되며 단순 연체채권 증가가 곧바로 추심업체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추심총량제 도입, 반복 연락 제한, 채무조정 안내 의무 강화 등은 채권 회수 효율성 저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는 민간 추심업체가 직접 회수 가능한 채권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고려신용정보의 중장기 ROE 하락 우려로 연결되며, 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사는 국내 채권추심업계 내에서 여전히 차별화된 수익성과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밸류에이션 하단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높은 배당성향 및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역시 주가의 추가적인 디레이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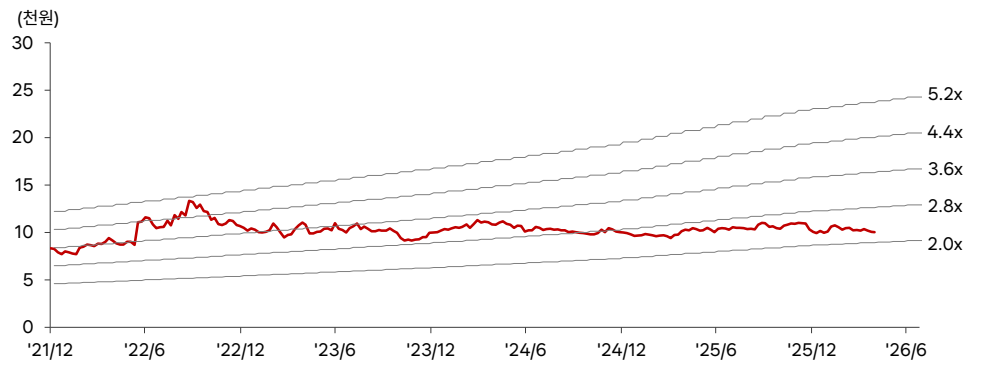
반면 향후 의미 있는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추심업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 완화 여부와 함께, 동사가 기존 위탁추심 중심 사업 구조를 넘어 NPL 투자·자산관리·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을지가 중장기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고려신용정보의 PER Band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고려신용정보의 PBR Band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리스크 요인은 정부 당국의 채무자  
보호 정책 강화 기조**

고려신용정보의 리스크는 채무자 보호 정책과 규제 환경 변화다. 과거 채권추심 산업은 연체채권 증가 시 수입 물량 확대와 함께 실적 개선이 가능했던 구조였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채권 회수보다 채무자 보호 및 연락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업계 전반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은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 추심총량제(7일간 최대 7회 연락 제한) 2) 재난·질병 발생 시 추심 유예 3) 반복적 연락 제한 4) 채무조정 안내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전통 채권추심업체의 회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였다. 과거에는 장기 관리와 반복 접촉이 일정 수준 회수율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법적 허용 범위가 축소되며 동일한 채권에서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역시 부담 요인이다.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제도 활성화 등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추심보다 채무조정 절차로 유입되고 있다. 이는 민간 추심업체가 직접 회수 가능한 채권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강화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동사는 내부통제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컴플라이언스 인력 확대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향후 감독당국의 검사 강화 시 과징금·영업제재 등 비재무적 리스크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최근 규제 환경 변화는 채권추심 산업을 단순 회수 중심 산업에서 채무조정 및 이용자보호 중심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고려신용정보의 중장기 수익성 및 회수 효율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468	1,582	1,713	1,780	1,862
증가율(%)	1.1	7.8	8.3	3.9	4.6
매출원가	0	0	0	0	0
매출원가율(%)	0.0	0.0	0.0	0.0	0.0
매출총이익	1,468	1,582	1,713	1,780	1,862
매출이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판매관리비	1,348	1,451	1,560	1,613	1,685
판매비율(%)	91.8	91.7	91.1	90.6	90.5
EBITDA	185	199	222	236	240
EBITDA 이익률(%)	12.6	12.5	13.0	13.3	12.9
증가율(%)	0.6	7.3	12.1	6.1	1.5
영업이익	120	131	153	167	177
영업이익률(%)	8.2	8.3	8.9	9.4	9.5
증가율(%)	-3.8	9.0	17.1	9.3	5.6
영업외손익	-6	10	9	6	11
금융수익	6	11	13	14	16
금융비용	5	7	6	8	8
기타영업외손익	-7	6	2	-1	3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14	141	162	173	188
증가율(%)	-10.1	23.5	15.1	6.7	8.6
법인세비용	8	23	30	40	43
계속사업이익	106	118	132	133	145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06	118	132	133	145
당기순이익률(%)	7.2	7.4	7.7	7.4	7.8
증가율(%)	7.5	11.1	12.5	0.2	9.1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106	118	132	133	145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5	200	204	175	192
당기순이익	106	118	132	133	145
유형자산 상각비	58	60	62	62	55
무형자산 상각비	7	8	7	7	7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08	-8	-28	-69	-14
기타	12	22	31	42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	-64	1	-90	-71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1	-26	12	-11	-3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8	-11	-10	-13	-30
기타	-27	-27	-1	-66	-38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6	-146	-111	-80	-93
차입금의 증가(감소)	-16	0	0	0	-20
사채의증가(감소)	57	-53	-8	-9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43	-49	-58	-65	-73
기타	-44	-44	-45	-6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5
현금의증가(감소)	15	-10	93	6	23
기초현금	101	116	105	199	205
기말현금	116	105	199	205	228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231	508	632	742	821
현금성자산	116	105	199	205	228
단기투자자산	27	52	66	130	166
매출채권	83	94	96	119	125
재고자산	0	0	0	0	0
기타유동자산	5	256	271	288	303
비유동자산	344	404	342	401	379
유형자산	156	165	150	194	169
무형자산	42	44	42	37	37
투자자산	44	68	43	53	56
기타비유동자산	102	127	107	117	117
자산총계	872	912	974	1,142	1,200
유동부채	395	353	358	391	382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395	353	358	391	382
비유동부채	84	103	87	122	122
사채	0	15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84	88	87	122	122
부채총계	479	455	444	513	505
자배주주지분	393	456	529	630	696
자본금	72	72	72	72	72
자본잉여금	21	22	22	52	52
자본조정 등	-2	-2	-2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302	365	437	506	572
자본총계	393	456	529	630	696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4.6	11.6	10.9	11.4	9.7
P/B(배)	3.9	3.0	2.7	2.4	2.0
P/S(배)	1.1	0.9	0.8	0.8	0.8
EV/EBITDA(배)	9.1	7.3	6.3	6.1	5.2
배당수익률(%)	3.1	4.0	4.5	4.7	5.6
EPS(원)	741	823	926	927	1,012
BPS(원)	2,748	3,191	3,700	4,403	4,865
SPS(원)	10,263	11,064	11,980	12,450	13,019
DPS(원)	330	380	450	500	550
수익성(%)					
ROE	29.3	27.7	26.9	22.9	21.8
ROA	12.6	13.2	14.0	12.5	12.3
ROIC	92.5	48.2	37.5	36.5	35.8
안정성(%)					
유동비율	58.5	144.0	176.8	189.8	214.9
부채비율	122.0	99.8	84.0	81.5	72.5
순차입금비율	36.8	18.6	-8.0	-12.3	-22.6
이자보상배율	36.6	25.4	26.2	21.4	22.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7	1.8	1.8	1.7	1.6
매출채권회전율	18.2	17.8	18.0	16.6	15.3
재고자산회전율	N/A	N/A	N/A	N/A	N/A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고려신용정보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5.15	고려신용정보(049720)-국내 채권추심업체의 독보적 1위 기업
2024.07.19	고려신용정보(049720)-탄탄한 실적을 내는 채권추심 1위기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